

## 朝鮮初 益安大君發願寫經에 관한 研究

The study on the script prayed by Ik-An prince(益安大君) in early Choseon Dynasty

권희경(Hee-kyung Kyon)\*

### < 목 차 >

|                   |                   |
|-------------------|-------------------|
| 1 서론              |                   |
| 2 본론              | 2.2.2 변상화의 양식적 특징 |
| 2.1 발원문           | 2.2.3 서체의 양식적 특징  |
| 2.2 양식적 특징        | 3 결론              |
| 2.2.1 표지화의 양식적 특징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조선 초에 제작된 익안대군(益安大君) 방의(芳毅)발원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 사경의 발원문에 관한 연구 및 표지화, 변상화, 서체에 관한 고찰이다. 발원문에 관한 연구는 정확한 연대와 발원에 실제적으로 참석한 인물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였다.

이 사경 발원문에는 정확한 연대에 대한 기록은 없고, 開國靖難定社功臣益安大君 芳毅同室貞惠翁主崔氏라는 기록이 보여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

표지화는 연화·당초문의 표현에 있어서는 고려 말로 호림미술관소장의 묘법연화경 7권본의 표지화로부터 시작된 굵은 태선으로 윤곽선을 그리는 양식적 특징이나 묘선의 경직화가 보다 심화된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적인 것으로 보아도 무방 할 것 같다.

변상화는 尙右의 설법화에 나타난 수미단의 계단에 산화가 그려지고 있는 점등이라든지 도식화된 地震등에서는 고려말·조선초의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석가의 형상이나 광배는 태종15년(1415)에 제작된 내소사소장 『妙法蓮華經』 7권본 한질의 변상화에서 보여주는 특징과 거의 같아 이러한 점은 조선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서체에 있어서는 충선왕 이후, 고려후기 사경 중에 나타나고 있는 松雪體가 엿보인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조선초 왕실발원 사경의 양식적 특징을 명확히 함으로서 년대 불확실한 고려사경의 년대추정에도 어떤 기준을 마련 하고자 했다.

요어: 사경, 익안대군발원경, 묘법연화경, 변상

\*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교수(jsm0130@netian.com)

<ABSTRACT>

The praying sentences of the script of Saddharmapundarika-sutra No.5 which was made by prayer Bang-Ui, prince Ik-An, was investigated and the cover painting, Byonsangwha( Buddha's preaching painting), and letter style written in the script were discussed in this study.

The cover painting on the script is known to be followed to the style of the cover painting as shown in a set of 7 rolls of Saddharma pundarika-sutra of the Horim Museum collection. It is not so difficult to say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over painting of the script would be succeeded to those of scripts of the end of Koryo and the early Choseon Dynasty.

Lotus and its surround was decorated with arabesque figure whose stems were drawn with golden paste and the arabesque figures were done with silver paste. However, for the expression of lotus and arabesque pattern the special feature of drawing style that was originated from the end of Koryo Dynasty to draw the outline with broad line and/or the hardness of drawing line became much more deepened than ever. It is not different to think that this characteristics should be those of Choseon Dynasty.

On the Byeonsangwha(buddha's preaching painting) the painting of scattered flowers on stairs of Sumera-Mandala and the scheduled clouds (underseen from heaven) were as similar as to the Byeonsangwha style of the end of Koryo and the early Choseon Dynasty. However, the image of Shakyamuni and/or the halo(光背) is nearly same as the characteristics shown on the Beonsangwha of Saddharma pundarika-sutra of Nesosa' collection, a set of seven rolls which was completed in the 15th year of king Taejong(AD 1415). It is apparent that these characteristics are those of Choseon Dynasty.

After king Chungseon in Koryo Dynasty, letter style of Chao Meng-Fu was shown in the script of late Koryo Dynasty as a new letter style.

Keywords : Saddharmapundarika-sutra, Byonsangwha

## 1 序論

고려사경에 대해서는 『고려사(高麗史)』나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기록에서도 언급이 있었고,<sup>1)</sup> 현재 국보·보물급의 유물이 상당수 있어 학계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상당히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작품 중에서도 우수한 사경이 많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경(朝鮮寫經)은 고려사경과는 달리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의 사경이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조선이 척불(斥佛)을 국시로 하여 출발하였음으로 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경(寫經)에 대해 왕실이나 양반사회가 외면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이러한 고정관념과는 달리 조선초의 상황은 밖으로는 척불을 내걸고 있었지만 왕실의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불교와의 끈을 끊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효령대군이 절로 들어간 사실이나, 조선 실록의 기록들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문종 조의 기록에서 이러한 사실들은 더욱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으니, 「문종실록(文宗實錄)」에 의하면 문종(文宗)이 즉위하자 3월에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題學) 정창손이 불사를 금하라는 봉장을 올린 글에서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봉장에서는 불상 제작과 불사와 사경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 문종 즉위 이전인 세종 때의 상황을 짐작케 한다. 뿐만 아니라 ‘사경을 위해 화선지를 만들고 불상을 봉안하기 위해 대자암(大慈庵) 불각을 부수고 산능과 같이 큰 불각을 지었다고도 기록하고 있어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한다. 특히 태종의 궁인이 머리를 깎은 것을 금지시키지 못해 궁안에 여승이 많이 생겼다는 기록과 ‘선왕의 유교(遺敎)가 있다할지라도 이를 금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왕후가 여승이 되고 왕자가 될 것이니 불사와 궁인이 여승이 됨은 반드시 금해야한다’는 등 정창손의 주장은 세종 후기의 왕실 내에 불교가 얼마나 성행했는가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또한 빈전(殯殿)에 법석(法席)을 설치하고, 3일과 七七일에 수륙제(水陸齋)를 지내고 소상을 행하는 것이 전일의 규정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어 태조·태종 때도 빈전의 예가 불교적이었던 것을 아울러 짐작케 한다. 뿐만 아니라 세

1) 「高麗史」文宗 12·31년조, 肅宗 6·7년조, 毅宗 10년조, 明宗 11년조, 元宗 13년조, 忠烈王 3·7·14·15·16·23년조, 忠宣王 2·3년조, 충숙왕 원년·7·8년조 및 「高麗史節要」忠烈王 7년조.

조 조에는 간경도감을 만들어 법화경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경전이 수백 벌이 인행(印行)되었고 대장경도 50질이 인행되었으며, 「석보상절」도 세조 4년에 간행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다.<sup>2)</sup> 이처럼 왕실이 불교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만큼, 조선초기에 제작된 사경 역시 고려사경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이러한 짐작을 현실로 대변해 주는 사경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이다. 표지화(表紙畫)[도1]나 변상화(變相畫)[도2]·서체(書體)[도3]에 있어서 고려 말에 제작된 사경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대변해 주는 작품이다. 전체를 감색의 염지(染紙)에다 금(金)·은니(銀泥)로 그려진 표지화나 금니(金泥)로 그려진 변상화(變相畫), 은니서(銀泥書)로 쓰여진 경전의 서체 등이 고려의 사경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발원문[도4]이 아니라면 고려사경으로 오인되기 쉬운<sup>3)</sup> 작품이다.

또한 발원문과 내용이 꼭 같지는 않으나 발원자가 같은 사경단간(寫經斷簡)[도5]이 일본 경도박물관(京都博物館)에 소장되어 있어<sup>4)</sup> 조선시대 왕실이 불교와 어떠한 관계에 있었던가를 짐작케 하는 사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할 때 사경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은 현재 발원문이 없어 양식만으로 고려말기의 사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많은 사경들의 시대추정을 위해서 엄격한 양식분석의 기초자료로도 의미가 큰 사경이라 할 수 있다.

## 2 本 論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은 세로 35.3cm, 가로 12.1cm의 첩자본으로 변상화의 크기는 세로 21.6cm, 가로 47.4cm이다.

한 페이지에 6행(行)씩 쓰여졌으며, 1행(행)은 17자이다.

감지(紺紙)에 은니서(銀泥書)로 쓰여진 이 사경의 변상화는 금니(金泥)로 그려져 있고, 표지화는 금·은니로 그려져 있는데, 연화문과 당초문의 줄기는 금니로 그려지고, 당초문

2) 「世祖實錄」

3)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카드에는 유물번호가 '德2466'으로, 시대는 고려시대로 분류되고 있다.

4) 권희경, 「高麗寫經의 研究」 1986, pp.465-466.

은 은니로 그려져 있다.

정확한 제작년대는 알 수 없으나, 발원문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초라는 것은 명확히 알 수 있다.

사경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은 물론, 일본 경도박물관 소장의 사경단간(寫經斷簡)도 발원문의 연대가 기록되지 않고 있어,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 태종 때 제작된 사경임을 발원문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경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은 조선 초 왕실에서 발원된 사경이므로, 상술한 바와 같이 고려말기의 사경으로 인식되고 있는 많은 연대 불명확한 사경들 중에서 조선 사경을 가려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연대 추정 작업의 위해서는 고려 말의 사경으로서 연대가 확실한 호림미술관 소장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7권본 한질이나, 마곡사 소장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7권본 한 질과 조선 초에 제작된 연대가 확실한 내소사 소장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7권본 한 질 등도 함께 양식적 분석의 자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경은 고려말기에 제작된 발원문이 있는 사경들과<sup>5)</sup> 조선초의 작품임을 확실한 파악할 수 있는 발원문이 있는 사경들을<sup>6)</sup> 중심으로 한 고려말·조선초 사경들의 양식적 차이점을 밝히는데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뿐만 아니라 발원문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 태종·세종·단종·세조에 이르기까지 당시 왕실의 상황을 밝히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이 사경의 발원문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 2.1 發願文

발원문의 원문(原文)은 다음과 같다.

- 
- 5) 禡王 3년(1377), 湖林美術館所藏 백지묵서 「妙法蓮華經」 7권본 한질,  
 禡王 12년(1386),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妙法蓮華經」 제7권,  
 禡王 14년(1388), 마곡사본 국립박물관보관 「妙法蓮華經」 제6권,  
 昌王 元年(1389), 安東 광흥사본 국립박물관보관 「妙法蓮華經」 제1·3권.  
 6) 太宗 15년(1415), 내소사본 全州市立博物館保管 「妙法蓮華經」 7권본 한질.

發願文

施主

奮忠伏羲同德開國靖難定社功臣益安大君芳毅

同室 貞惠翁主 崔氏.

위의 발원문을 통해 볼 때, 태조의 제3왕자인 익안대군(益安大君) 방의(芳毅)와 태종의 서녀인 정혜옹주(貞惠翁主), 그리고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왕실과 관계된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최씨(崔氏)가 시주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사경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선 시주자라고 생각되는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익안대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태조실록(太祖實錄)」에 의하면 익안대군 이방의는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셋째 아들로 개국공신(開國功臣)에 책록된 인물이다. 고려조에서는 공양왕 때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태조를 도와서 개국공신에 책록된 후, 동모(同母)동생 정안대군(靖安大君) 이방원(李芳遠)이 주도한 두 번의 왕자의 난에서 정안대군의 편에 섰던 인물로 1차 왕자의 난이라고 일컬어지는 방석(芳碩)의 난에서 공을 인정받아 태조 7년(1398)에 정사공신(定社功臣)이 되었다.<sup>7)</sup> 정종 2년(1400)에 일어난 방간(芳幹)의 난에서도 정안대군의 편에 섰으며,<sup>8)</sup> 후일 태종과는 극진한 형제의 우의를 유지하였다. 「태종실록(太宗實錄)」에 의하면 그가 와병 중에 있을 때도 태종이 그의 사가(私家)를 방문했으며, 심지어는 태종 3년(1403) 8월 1일에는 왕이 형의 문병을 위해 익안대군의 사가에 왔을 때 왕을 위하여 부축한 채로 춤을 추니 왕도 함께 춤을 추었다고 한다. 이러한 태종과의 각별한 형제의 우의로 태종 4년(1404)에 그가 죽자 왕은 그에게 안양(安襄)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아들 이석근(李石根)으로 하여금 익평부원군으로 봉했다. 또한 태종 4년에는 총제(摠制) 김한(金閑)에게 시집가서 줄한 그의 딸을 옹주로 삼기도 했고, 심지어는 그의 비첩의 아들 이승(李昇)까지도 부정윤(副正尹)으로 삼을 만큼 태종은 그를 극진히 대우했다.

세종 역시 선왕의 뜻을 받들어 그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예우하였다고 하니, 「세종실

7) 「太祖實錄」.

8) 「定宗實錄」.

록(世宗實錄)의 기록을 살펴보면 세종 9년(1427) 배향공신의 위치를 정할 때도 둘째 줄에 신주를 설치하였고, 세종 17년(1435) 그의 손자 이인(李仁)이 왕실의 시녀와 화음하고, 인의 첩 소생의 딸로 하여금 그 시녀의 수양딸로 삼게 했으며, 인의 조모인 익안대군의 부인 최씨로 하여금 그 부리는 종을 시녀에게 주게 하였고, 더구나 시녀를 그의 집에서 접견하고 여러 달 묶게 한 죄를 물어 인과 최씨 등에게 벌을 줄 것을 청해 대간들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렸으나, 세종은 굽히지 않고 '인의 죄가 중하지 않다'고 하며 대간들의 처단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 이듬해인 세종 18년에도 신하들이 인으로 하여금 서울 출입을 못하도록 주청하였으나, '인의 죄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미혹하여 저지른 일'이라며 아울러 인의 할아버지인 익안대군이 왕실의 의친(懿親)이라는 점을 들어 주청을 거절하였다. 또한 신하들이 최씨에게도 죄를 물어 다스리도록 주청 하였으나 '그녀가 너무 늙었고, 익안대군의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다'하여 외방으로 내치기를 거절하였다'고 하니 익안대군이 왕실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혜옹주(貞惠翁主)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정혜옹주는 태종의 사랑을 받던 '정의궁주(貞懿宮主)의 딸로서,<sup>9)</sup> 세종 원년에 박종우(朴從愚)에게 시집간 인물로서 세종 6년에 죽었다.<sup>10)</sup>

또한 최씨(崔氏)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면 전술한 세종 17년의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익안대군 이방의(李芳毅)의 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주자들에 대해 살펴보아도 이 발원문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발원문의 제일 앞 부분에 기록된

開國靖難定社功臣益安大君芳毅

라는 내용이다.

일단 정난이라는 기록으로 인해 이 사경이 정난공신의 책봉이 있는 후에 제작된 사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난(靖難)'이라는 기록이 개국(開國)·정사(定社)라는 기록 사이에 들어 있어,

9) 「太宗實錄」 3년, 4년, 9년, 18년조.

10) 「世宗實錄」 17년 5월조.

사경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겪게 한다. '靖難'이란 수양대군에 의해 안평대군·김종서·황보인 등이 제거되던 단종 1년(1453)의 정난 때의 공신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하겠지만, 익안대군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태종 4년에 졸하였으므로 정난공신이 될 수 없으며, 정혜옹주도 세종 6년에 죽었으므로 정난과는 관계가 없다.

‘開國定社功臣益安大君芳毅’라고 기록했으면 아주 간단하게 익안대군 이방의가 주동이 되어 사성한 사경으로 판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익안대군에 의해 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종 조 초두에 익안대군의 처였던 최씨가 정혜옹주와 더불어 익안대군을 명복을 빌기 위해 발원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정난공신 책봉이후에 최씨가 발원했다고 한다면 정혜옹주가 시주자로 들어 있는 것에 의문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최씨가 왕실의 여러 사람 중에서 굳이 정혜옹주에 대해서만 축원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 문제로 남는다.

그리고 ‘奮忠伏義同德’라는 기록이 있다하더라도 정사공신 앞에 정난공신 들어간 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정난’이라는 내용과 발원문에 시주자로 나타나고 있는 세 인물을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세조를 도와 정난공신 1등에 책봉된 정혜옹주의 부마였던 박종우(朴從愚)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경제작의 배후인물로 정혜옹주의 부마였던 박종우와 정혜옹주의 생모인 의빈 권씨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박종우는 찬성(贊成) 박신의 아들로서, 세종 1년 정혜옹주와 혼인하여 자헌대부(資憲大夫) 운성군(雲城君)이 되었고, 세종 6년에 정혜옹주가 졸해 혼자 되었다. 세종 18년(1436)에 승정대부(崇政大夫) 운성군이 되었고, 좌도절제사가 되었으며, 세종 24년(1442)에 호조판서가 되었고, 세종 26년(1444)에 광덕대부(光德大夫)가 되었다. 곧이어 함길도(咸吉道) 도절제사(都節制使)가 되었고, 세종 29년 5월에는 이조판서가 되었으며, 연이어 6월에 좌찬성(左贊成)겸판이조사가 되었다.

『문종실록(文宗實錄)』에 의하면 문종 원년에 박종우는 성록대부(成祿大夫)가 되었고, 문종 1년에 의금부제조(義禁府提調) 운성위(雲城尉)가 된 것으로 보아 문종 조에도 왕의 신임이 돈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종실록(端宗實錄)』에 의하면 단종 1년 수양대군이 안평대군과 김종서·황보인 등

을 처단할 때도 운성위 박종우는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하기를 ‘비록 부르시는 명령은 없었으나 변고가 있음을 듣고 여기와서 명을 기다린다’고 하여 세조가 그를 불러들였다고 하니, 이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처음부터 수양대군이 함께 도모한 인물이 아니라 나중에 스스로가 수양대군의 편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난공신 1등에 올라 수충(輸忠) 위사(衛社) 협찬(協贊) 정난공신(靖難功臣) 운성부원군(雲城府院君)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이 부마의 개취에서 태어났지만 반상의 서열에 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 단종 2년에 평안도(平安道) 도체찰사(都體察使)가 되었다.

「세조실록(世祖實錄)」에 의하면 세조 3년 왕에게 변명을 하다 의금부에 하옥되었다 석방된 일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세조 4년에는 다시 공신연(功臣宴)을 그의 집에서 베풀 때 임금이 주악을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어 세조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세조 10년에 운성부원군으로서 사망했다.

이와 같이 박종우는 세종 조에서 세조 조까지 승차를 거듭하였고, 윤사윤(尹士脩)·정인지(鄭麟趾)와 같이 재물을 많이 모은 사대부호(四大富豪)로서 명성이 있었다.<sup>11)</sup>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의하면 정혜옹주가 일찍 죽어 16살에 혼자 되어 후사가 없음을 가련히 여긴 세종이 그에게 양반가문에 혼인하도록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들과 사위가 벼슬길에 오르도록 허락했다.<sup>12)</sup> 세종 30년 사헌부에서는 이 일로 박종우를 탄핵하기를 청했으나 왕이 탄핵하지 말기를 명하였다. 이러한 세종조의 배려에 대해 사대부 관료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문종 1년에 지평(持平) 문여량(文汝良)이 박종우의 아들을 첩의 아들로 칭하면서 그가 동반(東班)에 서용(敍用)된 것이 대체(大體)에 어긋난다고 고하였으나, 문종 역시 이는 분의(分義)에 어긋남이 없다고 판정 할 만큼 문종의 신임도 두터웠다고 본다.<sup>13)</sup> 그러나 이 사건은 쉽게 끝나지 않았으니 「성종실록(成宗實錄)」에 의하면 성종 5년에 이르러 다시 박승인에 의해 다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박승인은 박종우와 장씨와의 사이에서 난 자식들은 얼손서(孽孫婿)라 했고, 또 그의 처는 서얼(庶孽)로서 개차를 청했으며, 그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서반도 아닌 동반에 오른 것에 대해서 개정하기를 사간원 대사간 정괄(鄭括) 등이 상소하였다.

11) 「世祖實錄」.

12) 「成宗實錄」 5년조.

13) 「端宗實錄」.

이에 대해 박종우의 아내 장씨도 상언하기를, '박종우가 13세에 부마로 뽑힌 후 3년만에 옹주가 졸하여 후사가 없음을 세종이 가련히 여겨 양가에 혼인하기를 허락한 사실을 밝히며, 자신을 박종우의 첩으로 논하는 것이 억울함'을 고했다. 그러나 이조(吏曹)에서도 공주가 졸한 후에 부마는 개취 할 수 없으며, 「예기(禮記)」에 두 적실이 없다고 하면서 장씨의 상언을 수리하지 말 것을 청했으나 왕은 예전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전교했다. 그러나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고, 성종 13년에 박종우의 손서 정건(鄭健)이 거창현감으로 있는 것에 대해 개차하기를 지평 구숙손(丘夙孫)이 상소했고, 비록 앞서 선왕들이 이를 허락했다 할지라도 이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청했다. 그러나 왕은 이 청 또한 윤허하지 않았다. 같은 해에 또다시 형조에서 이 일을 논의하자 왕은 박종우의 일은 세조가 특허를 베풀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성종 14년 및 15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한명회가 세조 조와 예종 조에 이미 허통한 일이라고 판정지었다.

이처럼 박종우에 대한 왕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까지 서열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다. 그 만큼 그는 왕실과 단단한 연결의 고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박종우가 이 사경(寫經) 제작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이라는 점에도 전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종이 즉위한 후 정창손 등에 의해 불사(佛事)에 대한 반대 의견이 한창 개진되고 있을 때, 박종우도 단독으로 '왕이 즉위 초에 불사를 일으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청한 바가 있다.<sup>1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우가 이 사경제작의 배후에 있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제시하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는 시세에 밝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항심(恒心)을 갖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단종 1년 수양대군이 안평대군과 김종서·황보인 등을 처단할 때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문종의 신임이 두터웠으므로 수양이 그와 함께 도모하지 않았으나 스스로 수양을 찾아가 사건에 가담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왕에게 불사(佛事)를 반대했다고 해서 한결 같이 불교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서 있을 인물은 아니었다는 점을 들 수

14) 「文宗實錄」 즉위년 3월 3일.

있다.

둘째, 상술한 세종 30년과 문종 1년의 기록에서 이 사경제작의 배후 인물로 지목 받을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의 재취사건에 대한 탄핵과 그의 아들이 벼슬에 오른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에 관한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부마로서 세종의 총애를 입어 재취하였지만 이 사건은 박종우에게는 언제나 그의 처지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일신상의 문제로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왕실과 의빈 권씨의 신임에 신경을 써야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관점에서 정혜옹주의 영혼을 위무하는 사경제작에 간접적으로나마 관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사경을 제작하는 일에는 많은 경비가 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구나 감지(紺紙)에 금니(金泥)·은니(銀泥)를 사용하여 사성(寫成)한 이 경전은 경비가 많이 들었을 것이므로, 조선초의 4대 부호였던 박종우 같은 인물이 아니면 완성이 어렵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박종우는 그의 일신상의 이유로 사경제작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배후에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을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경의 발원문 중에서 의문으로 남는 ‘정난(靖難)’이라는 두 글자이다.

이러한 박종우와 함께 정혜옹주의 생모인 의빈(懿嬪) 권씨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의빈은 태종 2년에 정의궁주가 된 인물로 태종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태종실록(太宗實錄)』에 의하면 동왕 2년에 왕이 그녀를 위해 대궐 북쪽에 누각을 짓고 누각 앞에 못을 팠다는 기록으로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종 4년에 의빈으로 봉해졌다.

세종에 의해 의빈으로 책봉된 후<sup>15)</sup>, 세종·문종·단종 조를 거치면서 왕실의 어른으로서 상당한 대우를 받았던 인물이다.

또한 『단종실록(端宗實錄)』을 살펴보면 단종 1년 1월 26일 조에 당시 의빈의 나이 70세로 궁중에 기거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므로 금성대군(金星大君) 이유(李瑜)가 자신의 집에서 봉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한바 있는데, 그 이유로서 그가 의빈의 손에서 자라났으므로 의빈을 봉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원경왕후가

15) 『世宗實錄』 4년조.

줄 한 후 의빈이 왕실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궁 밖에 나간 의빈 이하 모든 궁인을 다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사인(舍人) 나홍서(羅洪緒)의 주청에, 왕은 ‘의빈이 궁으로 들어오는 것은 가하지만 다른 궁주들은 이미 나갔으니 그대로 두라’라고 할 만큼 왕실에서 의빈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경은 익안대군의 처였던 최씨와 정혜옹주의 생모였던 의빈 권씨가 실제적인 발원자(發願者)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가능성은 『문종실록(文宗實錄)』의 기록에서 더욱 확연해 진다. 의빈 권씨는 세종 5년에 신녕궁주 신씨와 함께 임금에게 아뢰지 않고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자 후궁들이 다투어 머리를 깎고 염불하는 기구를 준비하여 아침·저녁으로 불법을 행하였는데, 임금이 금하여도 듣지 않을 만큼 불교에 기울어져 있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의빈의 행동을 본받아 세종이 즐한 후 많은 궁녀들이 의빈의 흉내를 내었다는 것이, 문종이 즉위한 이후 정창손등에 의해 비난을 받지만 문종 역시 의빈을 왕실의 어른으로서 대접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의 제작에 권씨가 관여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배제할 수 없다.

의빈 권씨가 사경제작에 관여하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태종 때 제작된 일본 경도박물관 소장 사경단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경단간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중에서 여래수량품의 권미(卷尾) 일부와 발원문만이 남아 있는 권말의 사경잔권(寫經殘卷)으로 발원문에도 익안대군과 정혜옹주와 최씨라는 기록이 보여 발원문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定社功臣益安大君芳毅 竊荷  
祖宗毓慶之蔭早□□鼎食  
恩庇罔極恩所以憑茲  
覺皇慈援圓報其萬一端祝  
太上王殿下壽筭濟天  
神懿王后在天之靈躋攀樂階  
上王殿下永與大妃長亨五福

主上殿下負屨億萬春秋  
 靖妃殿下椒蘭衍慶金枝永茂  
 元子千秋宗室康寧臣忠子孝國治民  
 樂次願已躬并同室貞惠翁主崔氏兼  
 及一家曰子曰女現增壽福當生樂鄉  
 敬捨淨賄鎖銀染楮騰寫蓮經用以流  
 通續佛慧令轉利無窮俱悅三界若疆

위의 발원문의 내용으로 볼 때, 이 사경이 적어도 태종 때의 사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태상왕 이성계의 수(壽)를 빈 후, 이미 세상을 떠난 신의왕후가 편안하게 저승에 갈 수 있도록 빌고 있고, 다음으로 상왕(上王)인 정종과 그 비의 오복을 빌고, 주상전하는 천자의 병풍을 두루고 억만춘추(億萬春秋)를 누릴 것과 정비의 영화를 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원자천추(元子千秋)와 종실강령(宗室康寧)을 빌고, 그 다음으로 왕실의 정혜옹주와 최씨를 필두로 일가의 아들 딸을 빈다’고 적고 있다.

이 발원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으로 볼 때, 태종과는 각별한 형제의 정을 나누던 익안대군 방의에 의해 발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혜옹주와 최씨를 필두로 일가의 아들 딸 빌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익안대군이 단순히 왕실을 위해서 발원한 사경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의 강령을 빈 후, 바로 정혜옹주와 최씨가 기록되고 있다는 점은 이 사경이 왕실 전체의 강령을 빌기 위해 사성된 사경이 아니라, 주인공인 익안대군 방의와 정혜옹주, 그리고 최씨와 그 자녀들의 강령을 위해 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씨와 그 일가의 자녀들보다 먼저 정혜옹주가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 사경제작에 있어 익안대군 방의에 버금가는 힘을 정혜옹주가 가졌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정혜옹주가 사경제작에 직접 동참했을 가능성이나 시주자로서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것은 세종 원년에 결혼한 정혜옹주는 아직 성혼하기 전의 미성년이었으므로 사경제작을 발의할 처지도 아니었으며, 시주자로서도 동참할 처지가 아니었다.

여기에서 태종 18년 11월에 예문관 대제학 변계량(卞季良)이 찬한 태종의 신도비문(神道碑文)을 살펴보면 정의궁주 권씨는 소생으로 1녀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6)</sup> 이 기록으로 ‘의빈 권씨로서는 소생이 정혜옹주 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혜옹주에 대한

16) 「太宗實錄」.

의빈의애정이 남달랐을 것이라는 점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므로 의빈은 정혜옹주를 위하여 사경을 발원하였을 것이고, 엄격한 척불정책을 쓰고 있는 태종의 입지를 위해 앞에 나서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

태조 때 불사가 자못 성하였으나 태종 조에 와서 불사에 관하여서는 10의 8·9를 제거하여 거의 근절되었다는 기록으로도<sup>17)</sup> 알 수 있듯이, 태종 조에 사경을 사성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더구나 감지은니서의 화려한 사경을 제작하는 일인만큼 익안대군의 처 최씨는 태종의 총애를 받던 의빈 권씨를 앞장 세웠을 것이다. 사경 단간의 발원문에 최씨보다 정혜옹주가 앞서 기록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의빈 권씨는 익안대군의 처 최씨에 의해 태종 때 사성된 감지은니의 사경제작을 배후에서 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단종 1년 이후로 그 제작 년대가 추정되는 이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의 사성에도 참여했을 것이며, 정혜옹주의 남편인 박종우가 금전적으로 도왔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2.2 양식적 특징

### 2.2.1 표지화의 양식적 특징

익안대군 방의 발원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 표지화의 가장자리에는 금니로 두 줄의 굵은 태선을 긋고, 사이에 연속 당초문을 그려 넣은 구획선이 있다. 그리고 이 구획선 내면에는 당초에 둘러싸여 있는 연당초문이 그려져 있는데, 앞 뒤 표지에 각각 네 송이씩 그려져 있다.

표지화는 전체적으로 윤곽선이 굵고 둔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연화문은 금니로 그렸고, 연화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당초문양의 줄기는 금니, 당초 앞은 은니로 그리고 있다.

이러한 표지화의 특징은 태종 15년(1415)에 제작된 부안 내소사 소장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후 ‘내소사소장본’이라고 칭한다.)의 표지화와 많이 닮았다.<sup>18)</sup>

뿐만 아니라 표제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자리의 윤곽선은 양쪽 금니세선 사이에 굵은

17) 「文宗實錄」 즉위년 3월 3일조.

18) 千惠鳳, 1986, p.67 ; 權熹耕, 1986, p.77.

테선을 넣은 점, 표제 위쪽에 보개처럼 덮고 복련의 윤곽선이 굵은 금니선으로 그려진 점 등도 내소사소장본과 거의 같다.

이와 같이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과 내소사소장본의 표지화가 양식적으로 많이 닮았다는 것은 이러한 양식이 조선초기 표지화의 공통된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14세기 후반 이후 고려사경표지화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도 할 수 있다.

고려사경의 표지화로서 이와 같은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서는 고려말기에 제작된 우왕 3년(1377)의 호림미술관의 백지묵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후 ‘호림박물관소장본’이라고 칭한다) 7권본 한질과[도6]19), 우왕 12년(1386)에 제작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소장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후 ‘이대박물관소장본’이라고 칭한다)<sup>20)</sup> 표지화를 들 수 있다. 다만 호림미술관소장본의 표지화는 표제 위쪽이 양화가 그려진 점이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의 표지화와 다른 점이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의 표지화와 내소사소장본의 표지화가 호림미술관소장본이나 이대학교박물관소장본의 표지화와 다른 점을 발견 할 수 있으니, 도식적인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호림미술관소장본의 표지화와도 이미 판화를 연상할 만큼 도식적인 특징을 두드러지고 있으나 「묘법연화경」 제5권의 표지화와 내소사소장본 표지화는 이보다 도식적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화문과 연화문을 둘러싸고 있는 당초문사이의 공간은 마치 감색으로 윤곽선을 그린 듯이 좁아지고 중판으로 구성된 연화는 둔한 묘선으로 꼬불꼬불하게 윤곽선을 그은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호림미술관소장본 표지화의 연화문은 중판의 연잎이 굴곡을 나타내고 있으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의 표지화와 내소사소장본의 표지화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균일한 곡선으로 윤곽선을 그린 것과는 다른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오히려 이대박물관소장본이 위의 두 조선조에 제작된 작품들과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당초문양에 있어서도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은 호림미술관소장본에 비하면

19) 천혜봉, 1986, pp.99-100 ; 권희경, 1986, pp.441-443.

20) 千惠鳳編著, 『國寶』 23, 1986, 藝耕産業社, p.67.

훨씬 생략적이며 묘선도 굵고 둔해 호림미술관소장본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대박물관소장본은 마멸이 심해 넝쿨문양쪽을 확연히 볼 수가 없다.

그러나 화심부분에 있어서는 이들 4작품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특징은 우왕 12년(1386)의 이대박물관소장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양식적 특징을 분석해 본 결과,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은 호림미술관소장본 혹은 이대박물관소장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연화문은 금니로 그리고, 당초문의 줄기는 금니로 얇은 은니로 그리는 연화·당초문양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연화문의 윤곽선이나 당초문의 줄기나 잎의 윤곽선이 지극히 도식적화 되는 것도 고려 말기의 표지화 양식이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의 사경 표지화에 있어서 도식화 과정은 이미 14세기 후반에 이르러 상당히 진행되었었다.

그러나 조선적인 특징의 하나로 굵고 둔한 태선으로 연당초문의 윤곽선을 그려, 연화와 당초 사이의 공간이 마치 감색으로 윤곽선을 그린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묘선의 경직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곧 시대의 변천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내소사소장본은 태종 15년 이씨부인이 그의 남편 유근(柳謹)을 위해 사성한 공양경이므로 이것은 개인발원의 사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의 표지 양식과 닮았다는 것은 조선 태종 이후 사경제작에 있어 이러한 특징이 상당히 유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2.2.2 변상화의 양식적 특징

이 사경의 변상화 역시 그 내용이나 양식에 있어, 표지화와 마찬가지로, 태종 15년(1415)에 제작된 내소사소장본의 변상화와 양식적으로 가장 가깝다.

석가 설법도가 거의 4페이지에 걸쳐 그려지고 있는데, 그 중 향우(向右)의 3분의 1이 석가설법도가 그려지고 있으며, 향좌(向左) 상단에는 화려한 담장 속 높은 단위에 세워진 장자의 집이 1페이지 반 정도에 걸쳐 그려지고 있고, 장자의 집 옆으로는 구름을 타고 앉아 있는 일군(一群)의 보살들이 그려져 있다.

법화사경 변상화에 석가설법도가 그려진 연대가 확실한 고려사경의 예로서는 먼저 충숙왕 2년(1315)에 제작된 일본 대승사(大乘寺)·천륜사(天倫寺)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7권본(제2권이 결손) 한 질[도7]<sup>21)</sup>을 들 수 있다. 이 사경은 대승사(大乘寺)가 제1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천륜사(天倫寺)가 제3권부터 제7권까지를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충숙왕 12(1325)년에 제작된 일본 소빈(小浜) 우하사(羽賀寺)(이후 '羽賀寺所藏本'이라 칭한다)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7권본 한질[도8],<sup>22)</sup> 일본 좌하현립박물관(佐賀縣立博物館)에 의탁되어 있는 일본 과도가소장(鍋島家所藏)의 충혜왕(忠惠王) 원년(1340)에 제작된 감지금니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7권본 한질('鍋島家所藏本'이라고 칭한다)<sup>23)</sup> 그리고 우왕 3년(1377) 호림박물관소장본(湖林博物館所藏本) 7권본 한질 등을 들 수 있다.<sup>24)</sup>

우하사소장본의 경우, 다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사경변상화와는 달리 제4권과 제5권의 변상화의 향우에는 보탑이 그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산질로 남아 있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7권본의 사경변상화들도 대부분 향우에 석가설법도가 그려지고 있어, 고려시대 제작된 법화경의 변상화에서 향우에 석가설법도가 그려지는 것은 14C 이후 일반적인 경향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석가설법도 역시 세부적인 면에서는 있어서는 각각 차이를 보인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 변상화의 석가설법도의 가장 특징의 하나는 계단자리에 산화를 상징하는 꽃들이 삼화형 속에 그려지고, 나머지 부분은 운문으로 채워지는 형상으로 그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현재 남아 있는 작품 중에서는 대표적인 작품이 1377년에 제작된 호림박물관소장본 변상화 설법도를 들 수 있다.[도9] 그 이전의 작품인 대승사(大乘寺)·천륜사(天倫寺)본에는 설법도중에 석가와 석가를 대하고 앉아 있는 보살들과 제자들의 뒤쪽에는 단에 오르는 계단이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 설법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석가의 광배(光背)라 할 수 있다.

두광(頭光)은 가장자리만 윤곽선만 그려 바탕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신광(身光)은 두광의 가장자리장식과 거의 같은 양식으로 그려진 윤곽선 안에 파상선이 가득

21) 권희경, 1986, pp.44-47 ; pp.129-300.

22) 권희경, 1986, pp.55-59 ; pp.300-303.

23) 前掲書, 『高麗寫經의 研究』, 1986, pp.74-81 ; pp.303-305.

24) 前掲書, 『高麗寫經의 研究』, 1986, p.305.

채워져 있다. 이러한 특징은 내소사소장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내소사소장본은 두광의 크기가 신평의 크기에 비해 오히려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향좌의 경우는 경전에 수록된 내용의 선택이 각기 다르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은 향좌의 경우 1페이지 반 정도에 걸쳐 화려한 담장 속 높은 단위에 세워진 장자의 집이 그려지고 있고, 그 집 속에는 왕이 앉아 있는 형상을 그리고 있다. 이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이라고 생각한다.

장자의 집 옆으로는 구름을 타고 앉아 있는 일군(一群)의 보살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의 내용인 듯하다.

설법을 하고 있는 석가의 형상도 다소 차이가 있고, 와형(渦形)의 지운문(地震紋)도 양식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은 오히려 鍋島家所藏本에 더 가까우며, 태종 때 제작된 같은 조선시대의 작품인 내소사소장본과는 얼마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14C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설법도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역시 계단의 형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변상화의 전체적인 형상으로는 거의 공백이 없이 금니선 로 가득 채우고 있는 점이라든지 능숙하게 긋고 있는 직선과 곡선이 가져다 주는 인상이 도식적이면서 경직되어 있는 것은 고려말기의 사경변상화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2.2.3 서체의 양식적 특징

고려사경의 서체는 일반적으로 구양순체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후기에 이르면 송설체가 가미된 서체가 상당히 유행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충선왕이 연경에서 만권당을 짓고 조맹부와 교우 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려후기의 사경서체는 자연 송설체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부언 할 필요가 없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 역시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사경 서체이다. 구양순체를 근간으로 해서 그 위에 송설체[도10]가 가미된 고려후기 사경서체로 쓰여져 있다.

‘若, 多, 在 者’자 등에서 송설체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sup>25)</sup>

고려사경 중에서 이 사경서체와 닮은 사경을 찾는다면 우왕 14년(1388)에 사성된 공주 마곡사(麻谷寺)소장본과 국립박물관소장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6권을 들 수 있다.

### 3 結 論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익안대군발원의 이 사경의 제작년대는 적어도 단종 1년 안평대군과 김종서·황보인을 제거한 후 정난공신을 책봉한 이후에 제작된 사경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경의 제작은 익안대군에 의해 발원된 것이 아니라 익안대군의 처 최씨와 의빈 권씨에 의해 발원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들과 더불어 정혜공주의 부마였던 박종우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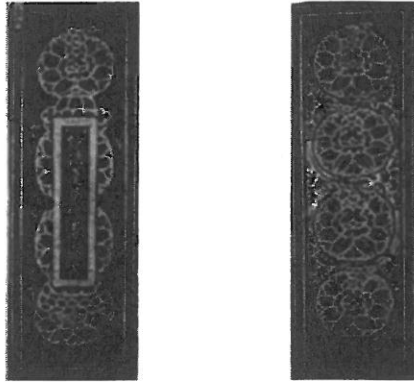
이 사경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의 표지화는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제작된 내소사 소장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7권본 한 질과 양식적으로 유사하며, 변상화는 호림미술관 소장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7권본 한 질에서 보여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서체의 양식은 전통적인 사경서체인 구양순체에 조맹부체가 가미된 우왕 14년(1388)에 제작된 마곡사 소장본과 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서체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들로 미루어 볼 때 사경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5권은 고려 말기 양식에서 영향을 받은 조선초기 양식을 대변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경은 앞으로 내소사소장본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과 더불어 고려사경으로 분류되고 있는 많은 조선 초기의 사경의 년대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25) 中國書法ガイド, 1989, 「元趙孟頫集」, 東京, 二玄社, pp.4-19.

<도 1> 익안대군발원 묘법연화경 제5권 표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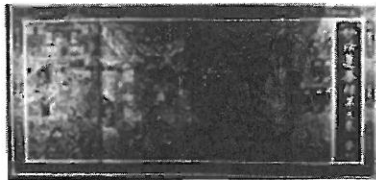


<앞면>

<뒷면>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妙法蓮華經』 제5권 표지화 앞, 뒤  
조선 단종1년 이후.  
세로 35.3cm, 가로 12.1cm. 첩자본.

<도 2> 익안대군발원 묘법연화경 제5권 변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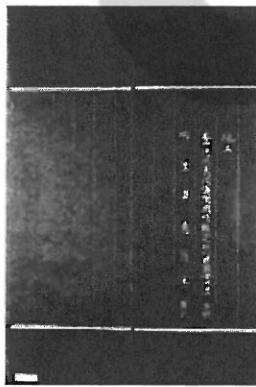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妙法蓮華經』 제5권 감지금·은니 변상화  
조선 단종1년 이후.

<도 3> 익안대군발원 묘법연화경 제5권 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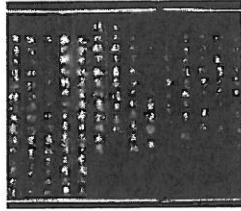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妙法蓮華經』 제5권 서체  
조선 단종1년 이후.

<도 4> 익안대군발원 묘법연화경 제5권 발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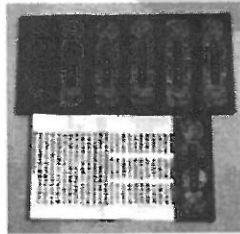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妙法蓮華經』 제5권 발원문  
紺紙銀泥書

<도 5> 일본 경도박물관 소장 사경단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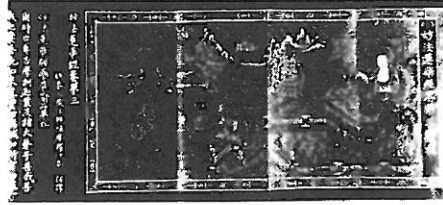
日本京都博物館 소장. 『寫經斷簡』  
紺紙銀泥書. 조선 태종조

<도 6> 호림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한질과 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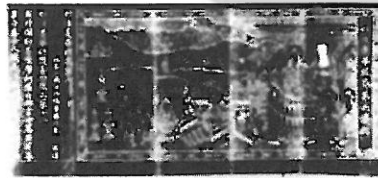
湖林美術館 소장. 백지묵서 『妙法蓮華經』 7권본 한질.  
고려 우왕 3년(1377).  
세로 31.8cm, 가로 10.9cm

<도 7> 호림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한질과 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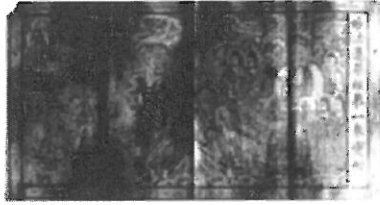
日本 大乘寺(제1권)와 天倫寺(3권부터 7권까지)  
분산되어 보관되어 있는 『妙法蓮華經』 7권본 中 제3권 변상화  
고려 충숙왕 2년(1315).  
세로 20.1cm 가로10.5cm

<도 8> 일본 소빈우하사 묘법연화경 제6권 변상화



日本 小浜 羽賀寺 소장. 『妙法蓮華經』 7권본 中 제6권 변상화  
고려 충숙왕 12년(1325)  
세로 29.1cm, 11.1cm

<도 9> 호림박물관소장 모법연화경 제1권 변상화



湖林美術館 소장 『妙法蓮華經』 7권본 한질 中 제1권 변상화

<도 10> 송설체

元近頗興  
欲而無天  
入求充下  
而諸塞爲  
閑遠然公  
之既或初  
門昧者無  
復廠舍側

송설체.

<참고문헌>

「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成宗實錄」.

權憲耕. 1986. 「高麗寫經의 研究」. 서울: 미진사.

中國書法ガイド. 1989. 「元趙孟頫集」. 東京: 二玄社.

千惠鳳 편저. 1986. 『국보』 23, 「서예·전적」. 서울: 예경출판사.



к с і